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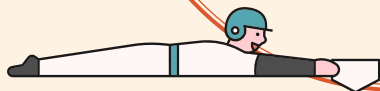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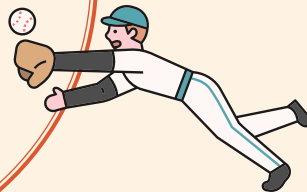


BASEBALL

우리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 야구 동호회 'LEON'

글. 김진서 TBS 라디오기술팀 기술감독



하루 대부분을 일터에서 생활하다 보면,  
물론 업무의 특성상 서 있고 이동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특히 사무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요즘은 잘하지는 못하지만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날에는 야외에서 활력을 얻고,  
평소 보지 못한 동료들의 표정과 대화들로 생기가 넘치기도 한다.

참여하고 있는 스포츠 동호회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동호회이다. 업무와 병행하여 동호회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가끔 야외에 나가서 햇빛을 보며 뛰고 움직임으로써 땀을 흘리면 그간 쌓아왔던 스트레스가 풀리고 자부심과 보람을 찾게 되었다. 이번에 소개할 스포츠 동호회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 'LEON'이다. 스포츠를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하여 결성된 동호회로써 건전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활력을 얻을 수 있다. '야구를 보는 것은 쉽지만 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야구 경기를 직접 뛰어보고 야구공에서 오는 그 짜릿한 순간이 있는데 이 맛을 보면 야구의 매력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다.

### ❧ ——— 야구 동호회 탄생 배경은 무엇인가요?

야구팀은 2018년 결성되었고, 팀명은 'LEON'이라고 붙였다. 팀 이름은 마초 느낌의 상징성이 두드러지는 좋은 팀명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레옹 영화의 주인공이 생각나게 되었다. 영화제목 그대로 팀명으로 정하였고, 팀 마스코트 이미지를 레옹의 남자 주인공 사진을 본떠 사용하였다. 유니폼은 초창기 창단 멤버들이 프로야구팀인 LG트윈스를 응



원하여서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 야구를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 팀을 꾸리게 되어 지금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하고 있다.

### ❧ ——— 야구 동호회는 주로 어떻게 활동하나요?

물론 자주는 만나지 못한다. 직장인이다 보니 보통 주말 오전에 연습한다. 감독의 지휘 아래 부족한 기술들을 배우고 단련하는 시간을 갖는다. 시즌 경기가 있을 때만 나오면 실력이 늘지 않아 연습경기에 많이 나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레옹팀은 야구에 목말라 있는 팀원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

1그룹은 정말 야구 열정이 넘쳐서 개인적인 연습뿐만 아니라, 팀 적인 연습도 바라는 팀원들이 있고, 또 다른 2그룹은 다소 1그룹보다 연습량은 적지만 프로야구를 좋아하고 응원하고 야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 경기 당일에는 모두 한 주간 개개인의 이야기와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 몸으로 야구해야 하지만 말로 더 많은 야구를 하는 즐거운 팀이다.

### ❧ ——— 야구 동호회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야구는 사람이 중심이다. 물론 공을 던지고 치는 것은 다른 구기종목과 같은 형태이지만 야구는 사람이 홈을 떠나 1루, 2루, 3루를 거쳐 홈으로 다시 돌아와야 점수를 얻는 경기이다. 다른 구기종목은 공을 중심으로 사람이 움직이지만, 야구는 사람을 중심으로 공을 움직이는 전략을 세우는 스포츠이다.

두 번째는 희생이다. 스포츠에서 '희생'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스포츠의 목적은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다. 그런데 야구에는 '희생타'가 있다. 이것을 통해 주자를 진루시키거나 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것이 바로 '희생타'이다. 어쩌면 이런 희생이야말로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아닐까 싶다.

마지막으로 야구는 포기가 없는 스포츠이다. '야구는 9회 말 2아웃부터'라는 말을 익숙하게 들어보지 않았는가? 전

설의 포수 요기베라가 한 명언이다. 이처럼, 야구는 역전극이 가능한 스포츠이다. 다른 구기종목은 공 한 개로 1점을 얻을 수 있지만, 야구는 공 하나에 4점의 득점이 가능하다. 이처럼 1이닝 동안 낼 수 있는 점수는 사실상 무제한이다. 야구는 포기를 할 수 없는 스포츠이다.

## 야구 동호회에서 필요한 장비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팀 장비 구입

야구는 기본적으로 경기를 하기 위해서 장비가 필요한 스포츠이다. 유니폼 외에도 글러브, 배트, 헬멧 등 개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 장비들이 있다. 장비는 팀에서 회비를 통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장비들이 있다. 특수한 포지션인 포수의 장비는 팀 회비에서 구입한다. 안면보호 마스크, 포수헬멧, 프로텍터, 락가드, 포수글러브 등이 있다.

### 개인장비 구입

#### 유니폼

유니폼은 야구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이다. 팀마다 유니폼이 다르고 기성복이 아닌 맞춤복이기 때문에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싸다.

#### 글러브

야구 장비 중 유니폼 다음으로 중요한 장비이다. 수비를 위한 장비이며, 야구를 즐기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비이다. 글러브는 자신의 포지션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브랜드와 종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글러브는 포수글러브와 1루수 글러브가 일반적인 글러브에 비하여 특이하게 생겼다. 내야수, 외야수, 투수용으로 구분된다. 야구에 처음 입문한다면 올 그라운드용 및 투수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 글러브 가격은 5만 원대에서 50만 원대까지 다양하다. 입문자라면 저렴한 글러브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장한다. 야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실력이 높아지면 세컨 글러브를 마련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리 브랜드가 좋고 좋은 가죽을 썼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꼭 맞는 글러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야구화

야구는 주루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 발이 빨라야 하며 순간적인 움직임이 중요하다. 구장마다 땅의 상태가 다르지만, 일반적인 운동화보다 야구에 특화된 신발이 필요하다. 흙으로 된 경우에는 징야구화나 포인트화가 좋은 편이고, 일반잔디, 인조잔디 구장에는 트레이닝화가 좋다. 입문자들은 포인트화나 인조잔디화를 추천한다. 인조잔디구장에는 투수 외에 징야구화를 신지 못하게 규정하는 곳도 있으니 징야구화를 구입하려면 잘 참고하여야 한다. 야구화 사이즈는 두꺼운 양말을 신기에 통상 자신의 신발사이즈에서 5mm 큰 것을 사야 한다.





## 헬멧

개인보호장비에 해당하는 헬멧은 개인장비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야구모자를 쓰고 헬멧을 쓰는 경우도 있으니 약간 큰 것을 골라야 하고, 반드시 직접 착용해보고 골라야 한다. 좌타자, 우타자에 따라 귀 보호 위치가 다른 외기형과 양쪽에 다 있는 양귀형이 있다.

헬멧은 투구나 타구, 송구로부터 타자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충격을 크게 받은 헬멧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미 내부가 약해지고 경기중 깨져서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가격은 5~10만 원대면 충분하다.

## 장갑

장갑은 배팅장갑, 수비용, 주루용이 있다. 배트를 쥐고 타격을 하면 미끄러지거나 타격 시 배트의 진동을 줄이기 위하여 배팅장갑을 많이 사용한다. 주루용 장갑은 루상에 나갔을

때 도루나 주루 시 손을 보호하고 도루를 시도할 때 슬라이딩의 위험에서 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배트

일반적으로 야구 동호회에서는 알루미늄배트를 이용한다. 프로와 달리 가볍고 튼튼한 알루미늄배트는 시합용과 배팅 연습용, 평고용 등 다양하다. 타격 연습을 자주 해야 한다면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한다. 배트는 33-28 등의 숫자로 규격이 표시되는데, 숫자는 각각 길이와 무게를 뜻한다. 33-28(33인치 28온스) 개인마다 선호하는 타입이 달라 잘 골라야 한다. 가격 10~60만 원.

## 가방

야구 장비와 개인물품 보관 등을 위하여 야구가방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글러브, 헬멧, 야구화, 공, 수건, 배트 등을 넣으려면 웬만하면 있는 것이 좋다. 5만 원 선.

## 경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프로야구와 같이 9회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7회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4회 10점, 5/6회 7점 차가 나면 콜드게임으로 간주하여 경기가 끝난다. 점수 차이가 너무 크게 나서 경기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야구 규칙이 적용된다. 대회 규정은 협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야구의 룰은 같다. 리그의 모든 선수기록은 정식기록은 남는다. 투수와 타자, 수비, 공격 등 모든 것이 정식기록으로 남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 특별히 어필하고 싶은 야구의 매력은 무엇 인가요?

야구는 독특한 매력이 있다. 특히 야구는 순간순간의 선택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에 집중



력이 특히나 요구되는 종목이기도 하다.

투수가 다음에는 무슨 공을 던질까, 저 타자는 어떤 공을 노리고 스윙을 할까... 내야수가 공을 잡아서 홈으로 달리는 주자를 노릴까, 아니면 한 점을 주고 안전하게 아웃카운트를 지킬까... 그런 선택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야구를 보면 그 재미는 더해진다.

야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보통 야구는 느리고 지루한 경기라고 생각한다. 다른 스포츠에 비하면 경기 시간이 길고 역동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구는 그 긴 시간에 걸친 경기가 느낌 속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일상과 닮은

치열한 두뇌 싸움과 비슷하다. 투수가 서 있는 마운드에서 타자가 서 있는 홈플레이트까지의 거리는 18.44m이다. 요즘 시속 150km 이상의 빠른 공을 던지는 상황에서 공이 홈까지 걸리는 시간은 고작 0.4초 내외로, 타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공이 지나쳐 버린다.

게다가 투수들이 직구만 던지는 게 아니라 공을 잡는 손가락의 모양과 야구공의 실밥에 얽힌 과학 등을 이용해 커브나 슬라이드, 체인지업 등 다양한 변화구를 던진다. 그래서 타자들은 타율을 높이기 위해 투수가 다음에 어떤 공을 던질지 예상하면서 배트를 휘두른다. 투수와 포수 또한 타자가 어떤 공을 기다리는지 예상하며 사인을 주고받는다.





야구는 순간순간의 선택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선택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야구를 보면 그 재미는 더해진다.

공의 구질 하나를 놓고도 치열한 두뇌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다.

타자가 멀리 외야로 보낸 공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잡아내는 명품 수비도 야구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다. 일반인들이나 이제 시작한 사회인 야구에서는 보기 힘든 명품 수비 속에도 인생살이와 닮은 과학이 존재한다. 타자가 공을 맞히는 순간, 수비 위치에서 재빨리 전후좌우로 조금씩 움직여 공의 속도와 떨어질 위치를 가늠한다. 가만히 서 있으면 멀리서 오는 공의 속도를 짐작하기 힘들지만, 조금씩 움직이면 공을 바라보는 위치가 달라져 입체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으므로 공의 속도를 가늠할 수 있다. 이처럼 작은 공 하나로 치열하게 두뇌 싸움을 하고 어떤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의 삶과 닮아 더욱 매력 있게 보이는 것 같다.

### ❧ ——— 야구 동호회만의 올해 계획은 무엇인가요?

올해 계획은 딱히 없다. 일단 상반기 시즌이 종료되었는데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다. 이제 하반기 시즌이 있어서 준비 중이다. 후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선수들의 유니폼을 새로 맞춰 입으려고 한다. 당연히 성적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애초에 친목을 위하여 만든 팀이었기에 우리는 재미로 즐거움으로 경기를 즐길 뿐이다. 뭐든 취미가 그렇듯 장비 욕심도 많아져서 괜찮은 야구 장비들을 하나둘씩 구매할 계획이다. 역시 가격은 만만치가 않다.

### ❧ ——— 마치며

한 달에 한두 번씩 동료,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을 찾아 경기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다면, 초기비용은 그리 아깝거나 커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염려한다면 그런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즐기기 위한 뿐이다. 즐거운 취미 생활이며,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활동인 야구 동호회는 부상만 피할 수 있다면 더욱 멋진 생활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야구가 아니더라도 망설이지 말고 주변에 스포츠 동호회를 찾아보길 바란다. 🏆

